

완도군, '전남 정원 페스티벌' 팡파르

바다-정원 환상적 컬래버...5월 한 달간 해변공원
가든 레스토랑·조망 정원 등 총 50여 개 정원 조성
오늘 장보고수산물축제와 공동으로 개막식 개최



'2023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의 전남 완도
군에서 개최됐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완도군 해변
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3 전라남도 정원 페
스티벌'은 국내 최초로 해변 부지에서 개최된
다는 점에서 유치 당시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
이에 군은 페스티벌 기획 단계부터 봄 바다
와 정원의 컬래버에 초점을 맞추고, 바다와 관
련된 소재를 정원에 반영하고, 행사장 부지 전

체에 인조 잔디를 시공하는 등 완도만의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했다.

정원은 약 50여 개로 대표 정원 1개소는 완
도 먹거리를 난대 숲 정원에서 즐기는 '가든 레
스토랑', 작가 정원 4개소는 바다를 조망하는
'조망 정원', 참여 정원 30개소는 해수욕장 구
명환에서 모티브를 딴 '튜브 가든', 섬자리 정
원 12개소는 배 모양의 '보트 가든' 등 완도만
의 특색을 갖췄다.

특히 페스티벌이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최되
는 만큼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본 행사 기
간(1차-5.4~5.7, 2차-5.12~5.15)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도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모스 정원, 다육이 정원, 토
피어리 정원 등 미니 정원 만들기 체험과 화분
케이크 만들기, 야광 슬라이드 가든, 루미너스 바
디 페인팅, 아기 동물 체험농장 등 다채롭게 준
비했다.

아기 동물 체험농장은 당초 장보고 수산물
축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나 축제 관련 부
서인 관광과와 산림휴양과 간 협조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정원과 함께 동물 체험을 하는 것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
여 정원 페스티벌 부스에 배치됐다.

부대 행사는 해변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매
일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5월 5일에는 완도군
홍보 대사인 '오세득 셰프의 치유 정찬'이 가든
레스토랑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월 6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전라남도 최초로 핑크퐁과 튠튠
의 댄스파티 공연이 두 차례 펼쳐진다.

또한 정원 페스티벌 행사장 진입부에 대형
스틸 플라워로 장식한 완도 비치, 목재 범선 모
양의 카니발 수비대, 등대, 엄마 까투리 등 다
양한 포토존을 곳곳에 배치해 사진 촬영 공
간을 제공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까지 정
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페스티벌 개막식은 장보고수산물축제
와 공동으로 5월 4일에 열린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어린이날 연휴 어디갈까? '공룡찾아, 해남으로!'

해남군 5월 5일부터 3일간 해남공룡박물관 일원 어린이공룡대축제

어린이날 황금연휴, 해남에서 공룡과 함께
하는 어린이대축제가 펼쳐진다.

해남군은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5월 5일
부터 7일까지 2023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해남어린이공룡대축
제는 '공룡! 공룡찾아 해남으로'를 주제로 가정
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로 마련했다.

축제는 공룡박물관 앞 잔디밭에 주무대와 어
린이 놀이터, 각종 체험부스가 마련돼 3일내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룡가족 아이사랑음악회를 비롯해 해군 군
악대 공연, 어린이OST 음악회 등 공연 프로그
램과 함께 공룡버블 퍼레이드, 마술·서커스·
드로잉·비눗방울 쇼 등이 이어지고, 공룡가족
운동회, 어린이 사생대회, 연날리기 경연대회
등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도 공룡박물관 곳
곳에서 펼쳐진다.



공룡열차를 타고 천연기념물인 우항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돌아보는 공룡발자국 탐험대
와 공룡 에어아바타와 함께하는 공룡버블 퍼
레이드는 공룡박물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
색있는 체험이다.

특히 공룡박물관 잔디밭에는 30m 에어바운
스와 레이기차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대규모 놀이 공간과 아트체이드로 이뤄진
가족친화형 쉼터를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룡박물관은 행사기간 무료개방되며, 실내
공연·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운영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출발'

장흥군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10
대 도입해 이번 달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
혔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는 콜택시 대기 지
연 및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휠
체어 장애인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운영자는 일반택시로 영업을 하
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의 배차 필요
를 받을 경우 바우처 택시로 전환하며, 장흥
군 관내에서만 운행 가능하다.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
시까지다.

바우처 택시 이용 등록은 전남광역이동

지원센터(061-287-8341)에 문의하여 신
청 후 대상자로 선정 시 이용 가능하다.

콜센터(1899-1110) 또는 스마트폰 어플
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 부담금은 1인
1회 이용 시 최대 1,000원(기본요금 2km
500원, 1km당 100원)이며, 이용 한도액은
매회 택시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합산(이용
자 부담금 제외)하여 월 30만원 이내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애를 가진 주민들이
이 교통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회 활
동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지정

영모당·추원당에 이어 3번째 보물 지정... '남도답사 1번지' 위용 뽐내



강진군은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이 국가지
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국가 보물 지정은 10
년에 하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강진군에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보물 세 개가 연속으로

지정되며, 남도답사 일번지의 위용을 뽐내고
있다.

특히 최근 지정된 영모당, 추원당에 이어 백
련사 대응보전까지 보물 모두가 다산권역에서
나와 고려청자 유산과 함께 강진 문화재의 양

대 산맥을 완성했다는 평가이다.

교과서에도 게재된 강진 백련사는 원묘국사
요세(1163~1245)의 결사 운동이 일어난 역사
의 현장으로, 조선시대에도 많은 승려가 수행
했던 유서 깊은 사찰이다.

백련사의 승려들은 인군 다산조담의 정약용
(1762~1836)에게 학문을 배우면서 만덕사지
편찬에 일조하는 등 불교와 유교가 서로 긴밀
하게 교류했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강진 문화유산은 크게 3가지 권역으로 구분
된다. 첫째 월출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려
한 자연환경으로 그 중심에는 백운동원림, 경
포대, 무위사, 월남사가 있으며, 둘째는 고려청
자 권역으로 강진만을 중심으로 108개 이상의
고려청자요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탁월한 가치
를 바탕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다산을 중심으로 한 다산권역으
로, 이번에 혈연으로 맺어진 해남윤씨와 종교
의 차이를 넘어 교유한 백련사의 승려들로 이
루어진 학연의 상징물이 모두 보물로 지정되
며, 강진의 다산초당권 문화의 완성으로 평가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 선정

8억4,000만원 사업비 확보...디지털 플랫폼 구축

진도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동네단
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축 사업은 동네단위
에서 우수제품 생산·소비가 가능한 유통채널을
구축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진도군은 서류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선
정됐으며,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
마트알뜰장터와 협약을 체결했다.

국비 6억원을 포함한 8억4,000만원의 사업

비를 확보해 ▲지역브랜드 상품화 ▲소상공인
상품 공급망 구축 ▲택배사 연계한 유통 인프
라 구축에 나선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온라인 판
매처 확대 ▲인터넷 판매 역량 강화 교육 등
차별화된 마케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동네단위 유통채널 구
축사업으로 농어가와 소상공이 상생할 수 있
게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